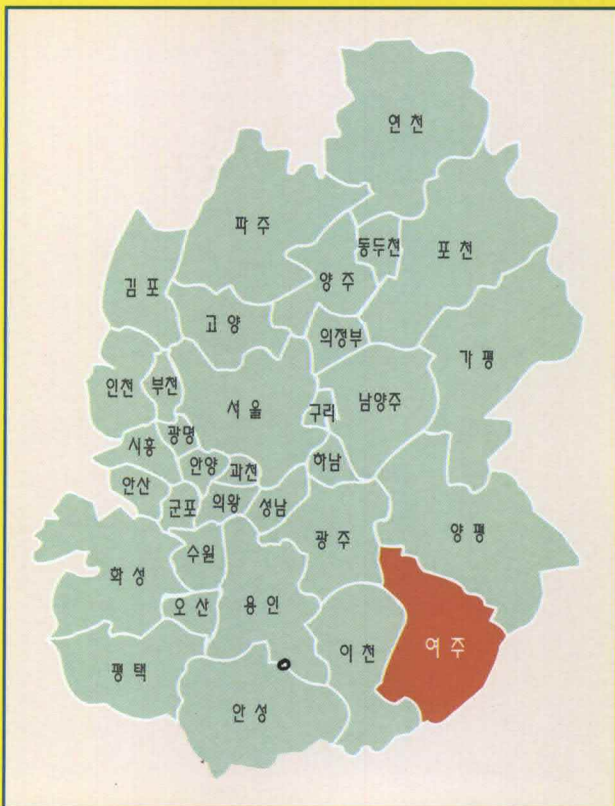


여주군

흔암리 쌍용거 줄다리기

원부리 열 담교(踏橋) 놀이

조기울 낙화놀이



흔암리 쌍용거줄다리기

1. 전승지

여주군 점동면 흔암리

2. 유래 및 해설

1) 해설

비교적 이 놀이는 강변안을 끼고 있는 넓은

공간이 있는 강변또는 농한기에 공지로 있는 빈밭에서 연회를 하거나 한다.

줄다리기는 지역마다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놀이 방법은 거줄의 제작, 놀이꾼의 구성 등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따라서 연회 과정과 이유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대부분 줄다리기를 하는 넓은 뜻의 공통적인 뜻을 내재하고 있다.

줄다리기를 함으로써 그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고 액을 막으며 협력하여, 줄을 제작하고 줄을 당김으로 대동단결의 힘을 기른다는 것이다.

대개 중부 내륙지방의 줄다리기는 강을 따라 선부들에 의해 놀이가 전래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조선 왕조때 수로가 교통의 중요한 역할을 할 때 운항하던 배가 겨울에 강이 결빙 되면 으레히 포구에서 일정한 집이 없는 선부들은 강물이 해빙될 때까지 머무르게 마련이다.

이 기간 동안 여주, 충주(목계), 영월 등지에 머무르면서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선부들이 줄다리기 놀이를 즐겼음이 나타나고 있는데, 줄다리기는 반드시 짚으로만 꼬아서 하지는 않았다. 여주, 충주 등지는 짚으로 꼬아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반해, 영월의 줄다리기는 칙냉쿨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줄다리기를 만드는 소재(素材)는 다르지만 재앙과 액을 막으며, 풍년과 복을 기원한다는 것은 어디든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영월의 줄다리기는 놀이가 끝난 후 토막을 내어 문앞에 매달아 두어 화와 액을 막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여주 부구리의 줄다리기는 논에다 내다 놓고 불을 질러 모든 액을 불사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혼암리 쌍용 줄다리기는 놀이가 끝난 후 결빙된 얼음 위에 액송기와 더불어 놓아 두면 해빙과 더불어 모든 액과 재앙을 흘러 떠내려 보낸다는 뜻이 있는데, 그 해 기온이 온화하여 보름을 전후하여 강물이 결빙이 안되면 액송기만을 강물에 흘러 떠내 보내기도 한다. 이외에 고장에 따라서는 입석(立石)에 맡아두는 경우도 있다.

우리 나라의 경북 영일 모포리의 줄다리기 놀이가 음력 8월 16일에 하는 것을 제외하고

는 거의 모두가 음력 정월 보름을 전후해서 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줄다리기는 대개 암줄과 솥줄 두개의 줄을 연결해서 행하기도 하며, 진도의 것처럼 외줄로 하는 곳도 있다.

대개 줄다리는 남녀가 편을 갈라서 하기도 하고, 혹은 동서로 또는 아랫마을과 웃마을로 나뉘어서 하는 경우와 마을과 마을이 대항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줄다리기는 중부이남 지방에 분포되어 있는 농경 의례적 놀이이다.

여주군 점동면 혼암리 뒷산(해발 123m)에 위치한 선사 유적지는 고고학, 인류학, 민속학 등의 연구 대상이 되는 선사 취락지와 전국 선사 5대 문화권의 한 지역인 이곳에서 출토된 탄화미는 우리나라 농경사를 재검토하게 된 계기를 만들었고 인근 지역의 곡물이 집하되어 황포 돛배에 실어 한양으로 운송하던 옛날 포구였다.

그러한 여건하에서 이 지방 특유의 전래 민속을 형성해 간직해 온 마을의 놀이이다.

2) 유 래

혼암리 쌍용겨줄다리기 민속놀이는 그 시원을 자세히 알수 없다.

여주에서 남한강 상류로 약 10km를 거슬러 올라가면 강변에 우뚝 솟은 서무산이 있는데, 이산 서편에는 속칭 범이 소죽을 쏜 숲에서 자고 잤다 하여 범숫이라고 하는 부락이 있다. 이 부락은 150호 가량 되는 마을로 원래는 처리(處理)가 아니고 호리(虎里)였으며, 또한 이곳 서무산 북편에 50여호가량 되는 혼암리라 부르는 부락이 쌍용겨줄다리기로 유명한 마을이다.

원래는 이 부락의 마을 한가운데에 큰 바위가 있었는데 이 바위를 인근 떡곡리 김참판

덥에서 상석으로 쓰기 위하여 채석해가고 비 하나를 남겨 놓았다. 여기에서 혼바우라는 명칭이 유래되고 후에 다시 혼암리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곳은 유유히 굽이쳐 흘러가는 남한강 물 구비를 따라 수백년 묵은 해나무가 강언덕에 하늘로 치솟아 덩수그러졌는데 이 해나무 아래서 혼암리를 비롯한 인근 처리, 삼교리, 떡골리, 강천면 굴암리등 12개 부락민이 정월 대보름에 모여 혼암리 쌍용거줄다리기 민속놀이를 갖고 그 해 풍년과 태평성세를 기원했다는 것이다.

원래 혼암리 쌍용거 줄다리기는 이곳이 수로 교통의 요충지로서, 옛날에 많은 뱃사람들이 어름 얼은 강물이 풀리기를 기다리면서 이 마을에 머물렀을 때 즐기던 놀이로 인근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이들에게는 중요한 행사의 하나였었다.

혼암리 쌍용거 줄다리기가 자취를 감춘 것은 일제(日帝)가 우리나라를 지배하여 민족 문화 말살정책을 강구하고, 육로 교통이 발달하면서 수로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구실이 퇴조하면서 부터이다. 수십년 전만 해도 이 고을에서는 인근의 새터 떡골 부락 동마루, 신진 새재 우만리, 처리, 삼교리, 굴암리, 강천리 등 12개 부락 주민들과 이곳에서 겨우살이를 하는 선부들이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서 짐짓 한판 신바람으로 민속놀이의 진면목을 펼쳐 농악놀이와 무등타기, 그리고 인근 12개 부락의 농기와 농악 등이 어울려 전통적인 민속의 마을 축제를 가졌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놀이를 혼암리 마을의 기능보유자의 증언을 토대로 여주 문화원장 안 금식, 이 사장 이 춘우의 문헌조사와 문화재 전문위원인 중앙대 정 병호 교수님을 모시고 84년 2

월 19일 마을의 옛 현장에서 재현함으로 오늘의 혼암리 쌍용거줄다리가 빛을 보게되었다.

3. 구 성

1) 줄거리

동리 사람들은 용을 만들 준비를 위해 목욕 재계하고 동리에 부정한 것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

집집마다 집을 걷고 아랫동네 윗동네가 가로대에 매달려 용을 튼다음 암용과 솟용은 각각 숨겨 둔다.

(1) 서낭제

마을 사람들이 아랫마을과 위마을로 나뉘어 정성껏 제작한 용은 각각 안보이게 숨겨둔 채 마야흐로 진잡이와 용틀림을 채비하고 있는 직전에 상쇠를 앞세워 부쇠, 쌍용기 농기, 나팔수와 농기 및 쌍용기잡이 등이 마을 동구밖의 서낭으로 가서 서낭고사를 지낸다.

어린 무등도 함께 하여 나즈막한 마을 어귀에 길군악(광목장단)을 치면서 간다.

그리하여 서낭에 다다르면 서낭님께 가서 제주는 물과 재물을 차리고 농악대는 빠른 가락을 몰아치다가 그치면 상쇠는 머리 조아리며 주문을 외워 마을의 무사와 평안을 기원한다.

누르세 누르세

서낭님을 누르세

말머리 넘고 소머리 넘고

오르내린 혼바우 서낭

남서낭 여서낭 잠동면 혼바우

각승바지 육승바지 사러 가드래도

아무 탈없이 이 서낭 넘나들게
 도와주소
 어떤 서낭 내서낭 험한 세상 살더라도
 서낭님이 도와주소

급기야 단숨에 상쇠가 주문을 외워 기원한
 다음 절가락을 치면서 굽신굽신 세 번 절을
 하고 이내 마을앞 참 샘물가로 농악대는 사
 뻘사뻘 발길을 옮겨간다.

(2) 대동(大同) 우물 고사

동네 앞 참 샘물로 가서 간단한 고사상을
 차려 놓고 가락을 치다 그친 다음 여러가지
 병마질고를 막고 부정한 액을 막아달라고 기
 원하면서 연신 굽신거리던 상쇠(탁준용)는
 머리 조아리며 다음과 같은 주문을 읽는다.

누르세 누르세 용왕님을 누르세
 아랫말 우물 윗말우물 동구밖
 우물
 이즈러진 머리 비단결로 감는 우물
 뿔으세 뿔으세 평평 뿔으세
 수정같이 맑은 우물 평평 뿔으세
 조상 대대 년년손손 먹고 살고
 먹고 살고
 뿔으세 뿔으세 목을 축여 생명 주고
 물이 넘쳐 식량 주고 아랫마을
 우물 윗마을우물 동구밖 우물

이렇게 절가락을 치면서 축원하며 세 번 절
 을 한 다음 대동 우물 고사를마치고 해나무
 가 서있는 여강 언덕아래 강으로 나간다.

(3) 강고사

질편하고 기름지게 탁트인 여강가에 길군
 악을 치면서 농악이 다다르면 퐁퐁 언 빙판

은 거울처럼 서무산을 얼비칠 것 같고 을씨
 년스런 산세를 빠른가락으로 몰아치는 상쇠
 의 팔꿈치가 강바람을 가르듯 더욱 바쁘게
 움직이며 주문을 읊는다.

사해 용왕님 사해 용왕님네
 흔바위 대강에 금년에 아무 사고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슬렁슬렁 뱃길구비 성강용궁님
 동강 용궁님
 용신 할아버지, 용신 할머니
 뱃길마다 밝혀 주고 풍파없는 뱃길 주고
 슬렁슬렁 물길구비 파도없이 밝혀주소
 동으로 용왕님께 서로 용왕님께
 열길 물길 합수되어 큰배 곱게 보내주소
 하늘이 있으면 지하가 있고 지하가 있으면
 하늘이 있지!

이른바 뱃길의 안녕과 옛날 뱃사람들의 무
 사 운행을 기원하면서 마을의 번서을 기원하
 던 부문을 이시대에는 좀 걸맞지 않게 읊조
 리고 절가락을 치면서 역시 세 번 절을 하고
 이어서 짐짐을 돌아다니며 마당밧기를 집고
 사를 지낸다.

(4) 집 고사

집 고사는 아랫마을 짐짐마다 돌아다니면
 서 마당밧기를 하게 되는데 늙수그레한 상쇠
 는 돌담을 울타리로 한 허름한 대문앞에 서
 서 쇠가락 치며,

“문여시오 문여시오 설령장수 문여시오.
 들어가오 들어가오 많은 인근 들어가오” 하면
 집주인은 서슴없이 대문을 열어주며 맞는다.

대문안에 들어선 농악대는 그 집 마당을한
 바퀴 휘돌며 흥취를 돋운다음 마루에 차려
 놓은 고사반(盤)을 향하여 일렬로 서서 절가

락을 치면서 세번 절을 한다.

곧이어 사뿐사뿐 상쇠는 발길을 부엌으로 옮겨 쇠가락으로 “누르세 누르세 조왕님을 누르세”라고 한 다음 이내 뒤울안 장독대와 터주가있는 곳으로 가 연실 쇠가락을 치며, “누르세 누르세 터주님을 누르세” 하고 고사를 지낸 다음 다시 마당으로 나와 한바퀴 휘돌며 원무를 하고 주인이 주는 술을 한잔씩 들고 마로 옆집으로 향하여 간다.

(5) 진잡이와 용돌림

아랫마을과 윗마을로 나누어 龍(거줄)을 준비해 서로 보이지 않게 두었던 용을 용받이꾼들이 어깨에 메고 한바탕 농악가락에 맞추어 용돌림을 한다.

숫용과 암용의 머리에는 술령수가 타고 뒷부분에는 경우에 따라 편장, 부편장도 타고 용돌림을 지휘한다.

농악대는 신나는 가락으로 흥을 돋우고 용잡이, 쌍용기잡이와 열두동네 농기를 든 기수들과 어느새 신바람이 나서 어깨가 들썩들썩 하며 움직이기 시작한다.

숫용은 암용을 쫓고 암용은 이를 피하는 등 용놀림 놀이가 한참 동안 신나게 전개된다.

삼시간에 동리 어린이들은 오색기를 들고, 노인들은 햇불을 들고, 어린 무동들은 무동을 타고, 촌장은 사인교를 타고, 마을앞 마른 논에서 신나게 한참을 휘돌다가 쌍용거 줄다리기로 하던 옛 현장 여강 언덕 회나무가 울썩느스럽게 덩수그러진 빈밭으로 신바람 나는 길놀이가 시작된다.

가볍게 불어오는 겨울 바람에 일렁이는 용기를 앞세우고 열 두 동네 농기가 겨울 햇살을 받으며, 알록달록한 오색의 변화가 운치 있게 기수들 어깨너머에서 춤을 춘다.

이 행렬은 농악 무동 촌장의 사인교, 쌍용

거줄다리기와 더불어 구경 나온 인근 동네 사람들이 장관을 이루어 혼암리 동네는 온구경 나온 인근 동네 사람들이 장관을 이루어 혼암리 동네는 온통 활기가 충만하여 마을 사람들 모두가 웃음으로 생동감이 넘친다.

아직도 응달에는 희끄무레하게 겨울의 잔설이 남아 있는 강 언덕에 농악 소리가 절정을 이루며 신나게 퍼져 나간다.

흥겨운 농악에 신바람이 어우러진 마을 사람들이 무거운 줄을 어깨에 메고 현장에 도착하여 회나무를 사이에 두고 크게 한바퀴 돌게 된다. 이때 황용과 청용은 서로 용두(龍頭)를 맞대고 한줄이 되어 대치하며, 줄을 결합하기 위한 여러가지 재미난 놀이가 전개된다.

술령수는 용두에 올라 타고 깃발로 용바지꾼을 지휘하는 가운데 화용(암용)과 청용(숫용)은 서로 머리를 대었다가는 물러서고 물러섰다가는 비켜서 반대 방향으로 휘도는 등 한참동안 실랑이를 벌이다 드디어 결합을 위한 절정에 달한다.

(6) 결전과 줄다리기

양편이 한동안 실갱이를 하다가 암용(황룡), 숫용(청룡)이 드디어 결합을 하게 되면 이내 두용의 결합을 축복하는 요란한 찬성이 울려 퍼진다. 이러한 가운데 요란한 풍물이 다다른 다음 결합을 축복하는 뜻에서 줄을 내려 놓고 경사스럽다는 분위기를 휩싸여 이른바 준비해 온 음식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 순간은 줄다리기를 하기 위한 잠시 휴식과 준비를 위한 것이다. 이때 농악대 용받이꾼들이 네편, 내편을 가리지 않고 서로 음식을 나눠들면서 순후한 정이 넘치는 분위기가 이룩된다.

잠시후 농악이 줄다리를 재촉하는 빠른 가락이 울리면 바로 이때 술령수는 용머리

근처에서 기를 흔들고, 용반이꾼들은 걸줄을 잡고 어린이와 노인들은 오색기와 햇불을 들거나 흔든다.

이미 줄다리가 시작되면 영차하는 아우성으로 을씨년스러운 회나무 아래 여강 언덕의 고요를 이즈러 트려 함성만이 드높게 울린다.

풍물소리, 응원소리, 영차소리가 뒤범벅이 되어 한판 승부가 끝나면 이긴 편은 마을촌장의 신호에 따라 만세를 부르며, 사대부라 으시대고 진편은 물개똥이라 놀려주는데 진편은 땅을 치기도 한다.

줄다리가 이렇게 하여 끝나면 빗장을 풀고 용을 다시 매고 강으로 내려가 뽕뽕 얼은 어름 위에 용을 맞대어 놓고 집집마다 식구들의 이름을 적은 액송기를 용에 낀다.

촌장이 소지를 울리고 상쇠가 고사를 드리는 동안 마을사람들은 가정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액송의식을 한다.

해빙과 더불어 모든 액을 흘려 떠나보내기 위한 것이다.

구태민안 시와영풍
연연이 돌아들고
李氏(한양 등극후
三角山이 기봉하고
왕십사는 청룡(靑龍)되고
동구재 만리재 백호(白虎)로다.
동쪽 강은 천금마(千金馬)요
한강이 조수되어
봉학이 년지 상녘구나
학을 놀러 대궐 짓고
대궐 앞에 육조로다
육조에 애경문은
각도 각읍 마련시
경기는 삼십 칠간 마련하고

여주같은 대무관이
이내 동네 대동네
작년같은 힘한 시절
꿈결같이 지났는데
올과 같은 행운년에
십년 행년(幸年)을 가려서
된것 액(厄)살을 풀어주자.

이어서 살풀이로 들어간다.
(이하 중략)

(7) 태평성대

(8) 홍수풀이

이렇게 액송 의식이 조용히 끝나갈 무렵이면 어느덧 해는 설핏해져 하늘은 점점 어둡이 찾아들고, 마을 사람들은 동리로 되돌아와 뒷풀이로 밤이 이스트록 풍물과 놀이는 계속된다.

※ 강물에 얼음이 얼지 않는 해에는 액송기만을 강물에 띄우는 경우도 있다.

※ 문예진흥 84년 4월호 정병호 교수의 여주 혼암리 쌍용줄다리기에서 발췌.

원부리 일 답교(踏橋)놀이

1. 전승지

여주군 점동면 원부리

2. 유래 및 해설

1) 해설

답교(踏橋.다리밟기)놀이는 음력 정월(正

月) 대보름을 전후해서 하는 우리의 세시풍속(歲時風俗)이며 년중 행사의 민속놀이이다.

“다리를 밟으면 1년 동안 다리의 병을 앓지 않고 건강하며 열두 다리를 밟으면 일년 내내 두 다리가 건강해져 그 해를 건강하게 지낼 뿐만 아니라, 액(厄)을 면할 수 있다”고 해서 남녀노소가 다리 있는 곳을 찾아 다리밟기를 했다.

서울 장안에서의 답교놀이는 장안 남녀들



이 온통 종각으로 몰려 들어 온누리로 올려 퍼지는 저녁 종소리를 듣는다.

그런 후에 다리 있는 곳으로 찾아가 함께 어울려 다리밧기를 즐기는데 다리밧기 행렬은 풍물과 춤으로 어우러지는 흥취로 인하여 밤이 지새는 줄도 모른다. 이러한 답교놀이가 남녀노소의 흥을 얼마만큼 돋우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지역에 따라 다리밧기의 특성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열 두 다리를 밧으면 열 두 달을 건강하게 지나고, 열 두달의 액을 방지한다고 생각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제일 긴다리를 하나만 건너도 된다고 믿는 곳이 있고, 또한 다리를 왔다 갔다 하여 자기 나이 숫자만큼 건너는 지역도 있다.

이외에 다른 곳에서는 햇불을 켜들고 불이 꺼지기 않게 다리를 건너야만 액을 면할 수 있다고 믿는 등 지역에 따라 그 형태가 여러 갈래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밧고 건너다니는 다리의 지닌 어의(語意)는 우마차 등의 무거운 것이 지나다니도 끄덕않고 튼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뜻이 사람다리의 건강과 연관해서 다리를 밧으면 그 해를 밧고 지나가는 튼튼한 다리처럼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의미가 부여된 것 같다.

다리를 밧으면서 선소리 놀랑, 앞산타령, 뒷산타령 등을 부르기도 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풍물을 울리는데 팽가리를 치지 않는 곳도 있고 치는 곳도 있다.

다리 밧기를 할 때 부인들은 음식을 던져 행복을 기원하는 일도 있다.

부락의 장정이 소년을 어깨위에 무릎을 태우고 앞세운 농악을 따라 다리를 건너며, 그 밖의 근처에서 신바람나는 농악에 맞추어 밧

이 지새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며 즐기기도 하고 음식을 대접받기도 한다.

다리밧기는 우리의 민속 문화중 다정한 정취를 물씬 풍기면서 옛 선인들의 예지를 엿볼수 있다.

조선 왕조의 밀폐된 생활 관습 속에 여인들과 양반 집 규수들이 이날만은 다리밧기를 핑계삼아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면서 은연중 사랑을 나눌 수 있었고, 낭만도 깃들여진 놀이였다고 한다.

오랜 연륜을 유유히 굽이쳐 흘러가는 남한강의 지류인 청미천(淸美川) 연변인 여주군 점동면 원부리(元富里) 부락은 옛부터 농악놀이를 비롯한 민속놀이 등의 세세 풍속이 흥성하였던 전통적인 고장이다.

이 부락은 경기도와 충청북도의 경계를 이루는 위치에 높이 솟은 오갑산 준령아래 등성등성 위치해 있는데, 원래 충청북도 음성군 거곡면에 예속했던 지역으로 이 근처에 원형(元亨)사라는 사찰이 있어 부락명을 원형리라 하였는데 경기도로 예속되면서, 여주군 점동면 분토곡(分土谷) 마을의 분자를 부(富)자로 고쳐 원형리의 원자와 부자를 따서 원부리(元富里)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원부리 앞을 유유히 흘러가는 청미천은 옛날에 황해에서 소금과 새우젓을 실은 거룻배가 넘나들었다고 한다.

이 부락 앞에는 목교가 있어 옛날에 여주에서 장호원 가는 길목이었다고 하는데 이곳 원부리는 오미에 10호, 안말에 32호 범말에 26호, 방죽말에 10호, 분토골에 3호등 모두 81호의 농가로 조형된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옛날에 이 마을 어귀인 동살미 산모퉁(구렁텅이)에 물레방아가 있어 이 마을의 벼와 떡방아를 이곳에서 찌었다고 한다.

이 고장에서 10대를 이어 살아온 원로들 중 송성남(宋成南 86세)옹은 향토민의 관심과 노력속에 지속적으로 발전해 오던 부락민의 심성과 의지가 담겨진 원부리 농악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는데 제작년에 타계한 열두발 상모의 지원서씨의 뛰어난 상쇠의 기량과 무동태우기 등은 인근 농악놀이 대회때마다 이름을 떨쳤다 한다. 특히 지원서씨는 속칭 범이 소죽 쏜 술에서 자고 잤다하여 범술이라고 하는 같은면 처리에도 다년간 이사가서 살아 그 부락 역시 농악 놀이가 유명해졌었다는 것이다.

여주에서는 주로 청미천변에 있는 점동면 지역에서 이 놀이가 있었다는 사실이 1983년 8월 25일 민속학자 임동권 교수의 조사에 의해 밝혀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으로 축제를 겸한 여주 원부리 답교놀이가 재현케 되었다.

우리의 문화 유산에는 민족의 얼이 맥맥히 이어져 가는 끈질긴 심성과 야무진 의지가 담겨 있다.

세종대왕의 어머니 원경, 왕후 태종비 여흥민씨를 비롯한 왕후가 조선왕조때만 해도 8분이나 맥을 이은 여주는 전통적인 문향의 고장이며 향토문화성이 옛부터 높은 고장이다. 오늘날 잊혀지거나 사라져가는 민속놀이를 발굴 재현하여 즐기치게 계승시켜 가고자 노력하는 의지속에 분명 꼼꼼하고 찬란하게 우리의 것을 소중히 챙겨 이어오던 우리 선조들의 빛나는 얼이 살아 숨쉬고 또한 그런 현상은 즐기치게 박동하는 우리의 뜨거운 가슴과 가슴으로 민족사와 더불어 값진 문화 유산으로 계승시켜야 할 과제라고 생각지 않을 수가 없다.

원부리 열답교는 정월 대보름날 자기의 나이 수만큼 다리를 밟으면 다리가 건강하여 그

해를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데서 비롯된 민속놀이 중의 하나인 답교놀이였다고 한다.

주로 답교놀이는 100여년전 한강유역 문화권에 속해 있는 마포 아현노들 노랑진 살곳이 다리 뚝섬자마자 바람드리 몽춘 돌말 석촌이 천 여주 양평 충주등지에 산재하여 왔던 놀이인데 다른 곳은 이 놀이의 계승이 중단되었고, 서울 송파와 몽춘 두 곳만이 약 60년전까지 연회되다가 중단되어 지금은 고령의 기능보유자 몇몇이 생존해 있는 실정이다.

여주 원부리의 답교놀이를 이끌어 오던 기능보유자들은 타계한 지 이미 오래되므로 무형문화재 49호인 송파 산대놀이 기능보유자인 한유성 옹과 이수자, 이병옥 선생의 전수 지도를 받아 재현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주 답교놀이의 등장인물은 50여명의 남녀가 자연스럽게 차려입은 갖은 복색으로 등장하여 다리를 오가기도 하고 어린 무동의 앙증스런 춤과 허리를 내놓고 흔들거리는 엉덩이 춤으로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왜장녀의 허리춤은 보는이들로 하여금 파안대소케 한다. 왜장녀를 비롯한 50여명이 화려한 복색으로 등장한 놀이꾼들은 흥과 신바람나는 농악 반주에 맞춰 원무, 열무, 개인무 행진등의 집단 무용과 농악으로 구성된 민속놀이이다.

이로써 보건데 원부리 열답교놀이도 다리와 건너는 다리에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이런 민속이 발생되었다고 보이니 그 발생 심리는 강이나 시내 위에 놓은 다리는 사람이 지나가고 무거운 수레가 지나가고 해도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니 사람의 다리도 같은 음인 다리이므로 그러한 튼튼한 다리위를 밟을 것 같으면 역시 사람의 다리도 튼튼해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보인다. 다시 말하면 다리는 같은 다리로서 예방한다는 것이니 열은 열로써 다스린

다 하여 더운 여름에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생각에서 일어난 것과 흡사하다 하겠다.

상원 이래 고래로 내려오는 담교놀이의 원천적 개념은 신성한 행위 진지한 종교적 행위와 대립적인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놀이는 신성성과 오락성을 동시에 지니는데 오늘날에 와서 신성이 희박해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담교놀이를 하면 액을 면할 수 있으며, 무병하고 다리가 건강해진다는 믿음과 그것을 기원하는 마음은 인간심성 깊숙이 뿌리내려 있는 놀이의 신성에 근거한 주술성을 믿기 때문이다. 인간이 신에게 풍요한 생산의 지속성을 비는 것은 궁극적으로 삶의 지속을 기원하는 민간 사고에서 출발한 것이다. 해마다 음력 정월 초가 되면 되풀이되는 담교 또한 담교 방법에서 다리를 왔다갔다 하며 되풀이 하는 것은 곧 생의 영원성을 비는 민간 사고에서 온 것이라 하겠다. 여기에서 순환축진 존재 근원에 대한 원질사고의 문체가 대두되는데 이는 담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시풍속 전반을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더욱 담교속에 등장하는 선소리는 구비 문학의 장르로서 세시풍속에 나타난 문학의 요소를 다분히 지니고 있는 가치성있는 민속놀이라 하겠다.

2) 유 래

다리밟기의 발생 유래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수광(李睡光)의 지봉유설(芝峯類說)에는 고려때부터 담교놀이가 시작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옹락(雍洛)이 지은 영이록(靈異錄)에는 당(唐)나라에서 정월 보름날 밤을 중심으로 전후 3일을 저녁에 시행하도록 했더니 남녀들이 놀러다니는 차마(車馬)가 길을 메웠다고

한다. 육계평이 쓴 북경세화기(北京歲華記)에는 정월 보름날 밤에 부녀자들이 모두 나와서 다리를 거닐었다는 것.

정월 보름날 밤에 부녀자들이 서로 어울려 이끌고 나와 다리위를 거닐므로 질병을 없애는 것을 주백병(走百病: 모든병을 물리침)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16일 밤 부녀자들이 다리가 있는곳에서 때를 지어 놀았다고 한다. 이때에 부녀자들이 다리가에서 놀면서 삼을 지어 놀았다고 한다. 이때에 부녀자들이 다리가에서 놀면서 삼삼오오 짝을 지어 다리를 건너는 것을 도액(度厄, 액막)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걸쳐 담교놀이가 성행하였는데 경기도 내에도 광주, 양주, 포천, 가평, 여주, 이천, 용인, 안성, 부천, 김포, 강화, 파주, 개풍등지에서 서울의 담교놀이 못지 않게 유명하였다고 하나 전래되고 있는 곳은 얼마 안된다.

전술한 내용은 풍속을 기록해 놓은 홍석모(洪錫謨)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김만순(金萬淳)의 열양세시기(列陽歲時記) 유득공의 경도잡지(京都雜志)에서 담교놀이에 관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대개 우리나라의 민속놀이는 서민계층에서 발원하여 서민계층이 즐기는데 반해 이 담교놀이는 사대부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참여하였다.

보름날 저녁에 열 두 다리를 건너면 열 두 달의 액을 막는다하여 宰相과 貴人으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늙고 병들어 거동이 불편한 사람외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한다.

요컨대 太宗 이후에는 불교권의 영향을 받아 성행하였던 관등놀이보다도 담교놀이가 더 성행하였으며, 특히 서울 지역의 노랑진 살곳이 다리, 답십리, 두붓게, 서빙고, 용산

등지에 성행하였으나 수십 년 전에 사라지고 서울 송파와 경기도 과천과 여주의 접동면 원부리에만 발굴되어 남아 있는 실정이다.

3) 특 징

왜장녀가 허리를 내놓은 허술한 옷차림으로 엉덩춤을 추고 온갖 병신짓을 하며 웃기는 것이 특징.

(1) 답교놀이는 정월 대보름날 밤 다리를 밟으면 1년동안 다리병이 없고 열두 다리를 밟고 지나가면 열두달의 액을 면한다고 하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리를 밟으니 이것이 다리밟기이다. 여주지역 답교놀이는 깃대잡이 쌍호적 장고 제금 상좌무동 무동받이 무동 집사등이 화려한 복색으로 풍물과 선소리꾼 소리에 맞춰 원무, 열무, 개인무, 행진의 집단무용과 음악으로 구성된 민속놀이나 원래는 농악놀이와 더불어 특별한 복식없이 자연스럽게 차려입은 복식으로 이루어져 얼 답교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2) 여주 답교놀이 행사의 특징은 정월초에 시작해서 보름 전후까지 또는 정월 한달 내내 한다. 원래 여주의 답교놀이는 원님이 행차할 때 편안하게 잘 지나가라고 하던 축제였다고 한다. 옛날 원님이 호사스럽게 차려입고 다리밟기를 하던 것이 유래가 되어 한강유역권 지역인 여주에서도 그것을 본 떠 정월의 잔치로 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여주에서는 자연스러운 복식 그대로 옛 선조들이 농악놀이와 답교놀이가 잘 어울려 얼 답교놀

이라 하였다는 것이다.

(3) 답교놀이의 놀이꾼들은 처음 길을 행진할 때 길군악을 치며 행진한다. 옛날의 패다리가 지금은 거의 없어진 실정이어서 여주는 옛 현장인 원부교를 건너면서 이 놀이를 하는데 상좌 무동 및 노장등 왜장녀가 허리를 내놓은 허술한 옷차림으로 엉덩춤을 추고 온갖 병신짓을 하며 웃긴다. 처음 전수받아 재현할 때는 임금이 등장했으나 지금은 하지 않고 촌장이 중심이 된다. 원래는 놀이패들이 마을을 중심으로, 선소리의 놀량, 앞산타령, 뒷산타령, 잦은 방아타령의 네종류로 선소리가 불려지는 신성성, 오락성 등 주술성이 다분히 잠재한 놀이라 하겠다.

3. 놀이의 구성

답교에는 54명의 남녀들이 화려한 복색을 하고 등장.

- 큰기잡이(1명) : 머슴의 복장으로 큰기를 잡고 신바람나게 앞서간다.
- 영기잡이(2명) : 머슴의 복장으로 영기를 잡고 큰기 뒤를 신나게 따른다.
- 촌장(1명) : 대감모자에 양반차림의 옷을 입고 위엄있는 자세로 흥에 겨운 발걸음으로 가마에서 내려 다리를 건너간다.
- 집사(2명) : 촌장앞에서 양반차림의 옷차림으로 열정대며 따라간다.
- 권라쟁이(2명) : 검정 복색에 꼬리 달린 병거지를 쓰며 기다란 방망이를 들고 촌장 행차에 길을 트며 길잡이를 한다.

- 가마꾼(4명) : 촌장이 탄가마를 메고 다닌다. 복식은 머슴의 복을 한다.
- 무동받침(5명) : 흰바지 저고리를 입고 소무와 상좌를 어깨위에 무동 세운다.
- 소무(4명) : 곱게 여복색을 한 소년 또는 소녀가 머리를 길게 땡아내리고 아염을 쓰며 온갖 재롱과 어깨춤을 추고 간다.
- 상좌(1명) : 소무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소년 승복에 고깔을 씌는데 무동을 타고 소무를 중심에서 그들과 함께 놀이를 한다.
- 악사 : 장구1명, 호적2명, 팽과리1명, 북1명, 제금1명, 소고4명, 징1명 악사들이 연주를 하며 뒤따라 간다.
- 노승(1명) : 장삼에 목탁을 들고 임금행차의 잡귀신의 접근을 막고 임금의 안전을 빌어준다.
- 왜장녀(명) : 허술한 옷차림으로 허리를 내놓고 엉덩춤을 추고 갖은 명신 짓을 하면서 흥을 돋군다.
- 햇불잡이(10명) : 머슴의 옷차림에 흰수건을 머리에 동여매고 햇불을 들고 어깨춤을 추며 간다.
- 등용(2명) : 머슴복장을 하고 등용을 들고 영기 뒤를 따른다.
- 춤꾼(1명) : 수염을 달고 짚신을 매달고 춤을 추며 따른다.
- 지계꾼(1명) : 각종 음식을 지계에 지고 신나게 뒤를 따른다.
- 동네처녀총각(8명) : 무리를 지어 따라가다가 툭툭 치며 장난을 하다 부모한테 들켜 끌려가는 분위기가 연출된다.

조기울 낙화놀이

1. 전승지

여주군 소곡동 해촌 묘촌

2. 유래 및 해설

조기울 낙화놀이는 이조(李朝) 초엽부터 해마다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서 해촌과 묘촌(소곡동) 두 마을에서 행하여 오던 매우 독특한 불꽃놀이이다.

해촌마을 사람들은 잔잔한 소(沼)에서 메밀짚 태운 물에다 창호지를 담구어 둔다. 이것을 잘 말려 참나무 숯가루와 소나무 껍질질을 뺀 소금과 혼합해서 동리 연변에 해마다 심으면서 수십년을 잘 가꾸어 온 나무에다 줄을 걸고, 동리 사람들이 정성들여 만든 숯가루와 소나무 껍질을 넣고 순대처럼 마른 줄불에 불을 붙여 줄불에 숯가루가 탁탁 튀면서 눈보라처럼 휘황찬란하게 나뭇가지는 불꽃을 보고 즐겼다. 그리하여 해촌과 묘촌에서 한해 한번씩 번갈아 가며 태평성세와 풍년을 기원하면서 더디게 타도록 햇불땀이를 두 군데 세워 줄불과 함께 불을 붙여 즐긴 놀이였다.

3. 구 성

1) 줄거리

마을 사람들은 낙화놀이를 하기 위해 두 달 전부터 촌장과 더불어 대동회를 열어 자료 준비를 위한 회합을 갖는데 대개 이놀이는 유사(추진위원)가 선출되면 유사가 낙화놀이 준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낙화놀이에 필요로 하는 자료 수집에 나선다.

우선 낙화 줄불에 소요되는 참나무 껍질질로 숯을 굵고 조선소나무 껍질질을 수집하여 숯과 소나무 껍질질을 곱게 가루로 뺀다.

이런 자료의 준비가 끝나면 메밀짚 태운 물에 창호지를 담구었다가 말려 줄불을 숯가루와 소나무 껍질질을 뺀 가루에 소금을 섞어 버무려서 창호지에다 순대처럼 낙화 줄불을 말아 매서 묶는다. 또한 집집마다 액을 불사르는 의미가 부여된 등(燈)을 만들어 식구 이름, 혹은 기원하는 내용을 적은 액 등(燈)을 싸리나무로 만든다.(지금은 철사로 만든).

집집마다 짚단을 거둬 짚뿔을 깔때기처럼 지어 높이 쌓은 햇불땀이를 만들어 세운다.

준비된 낙화줄을 낙화줄 놀이를 하기 위해 가꿔온 동리 연변의 나무 양쪽에다 백 오십미터 내외의 길이에 줄을 맨다.

눈보라처럼 나뭇가며 타내리는 불꽃을 고

조식하기 위해 논뼤미에 물을 대어 두고 집집마다 적당히 쌀을(추렴) 건으면 모든 준비가 끝나고 본격적인 낙화놀이를 하기 위한 의례가 진행된다.

2) 금줄매기

해촌은 평산 신씨가 사백여 년을 머물러 대대로 농사를 주업으로 살아 온 고장이다.

이 놀이가 시행된 시기가 언제인지 뚜렷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평산 신씨네가 이 고장에 집성하여 정착하여 살기 시작할때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해촌의 평산 신씨네가 집성하여 농경생활 문화속에서 놀이를 계승하여 온 것만 확실할 뿐 놀이의 시원은 알 수가 없다.

해마다 이 놀이가 시작되기 며칠 전부터 어김없이 동리 어귀에는 금줄이 매어진다. 바로 이 금줄은 부정한 사람들이 동리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동리 사람이라 할지라도 밖에 나가 부정한 것을 본 사람이거나 자신이 부정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동리에 이 놀이가 끝날 때까지 들어오지 않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3) 햇불땀이 불꽃싸움

동리 사람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 짚땀불을 묶어 높이 세우고 짚땀불 위로 올라 가서 양쪽에 불을 붙인다.

불이 더디게 타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더디게 타고 오래 타도록 물을 끼얹고 짚도 더 갖다 놓기도 한다. 이 햇불땀이 불꽃이 장관을 이루어 동리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흥에 겨워 즐거운 분위기가 고조되어 가고 이내 낙화줄에 불이 달구어지면 점점 낙화줄 불놀이는 절정에 다다르게 된다.

4) 조기울 낙화 놀이

태평성세와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가 부여된 이 놀이는 마을 어귀 나무 아래서 제를 지내고 풍물을 울리며 남녀노소할 것 없이 낙화줄에 불이 달구어지고, 액 등(燈)에 불이 붙여진 상태에서 눈보라처럼 비단결같은 낙화의 불이 흘러내린다. 이 광경은 보는이들로 하여금 경탄을 자아내게 하는 놀이로 줄불이 모두 탈 때까지 그냥 놓아 두게 된다. 이때 중천에 솟은 달은 정월 보름 이튿날이라 보름달 못지 않게 달이 밝고, 줄불은 흐르고, 액 등(燈)은 흐느적거리듯 타면서 가늘게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리어 운치를 더해 준다.

안동의 줄불 놀이는 줄불을 한쪽에 매어 아래로 늘어지게 하고 아랫부분에 불을 붙인다.

그러나 여주 조기울 낙화놀이는 줄불 가운데를 묶어 매달아 양쪽에다 불을 붙임으로써 비단결처럼 흘러내리는 불꽃이 어느 때는 마치 불이 쏟아져 내려오는 폭포를 보는듯 싶은 감흥을 일게 하는 특색 있는 여주 고장의 민속 놀이이다.